

1. 예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한 명의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언어를 쓰고, 특정한 문화 속에서 자라났으며, 먼지 날리는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배고픔과 피로를 아셨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배신과 오해를 경험하신 실제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살았던 한 유대인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바로 그 질문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이전 시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세대입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더 불안합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정받아도 곧 더 큰 인정이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어도 또 다른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돈, 성취, 관계, 가치관, 심지어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안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죄와 단절, 죽음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싶어도 상처를 주고,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한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멀리서 판단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와 불안, 죽음의 무게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를 “벌받아 마땅한 실패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의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죽음, 절망이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불안과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패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을 힘이 있으셨습니다. 폭력으로 억압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천군천사를 불러 모든 적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신 방식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었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으며, 지배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한 폭력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불완전함과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사랑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나의 불안과 죄, 두려움 속으로 들어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 있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무너져 있든, 그 사랑은 당신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 _____

- 내 삶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허무함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
그때 나는 보통 어떻게 대처하나요?

→ _____

-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인간으로서 겪으신 고통과 경험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비움', '용서', '사랑'의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예수님께서 힘을 과시하는 대신 사랑과 용서, 자기 비움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 _____

-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나 실패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나요?

→ _____

- '내가 사랑받는 존재' 이듯 '다른 사람도 사랑받는 존재' 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기도문을 부분별로 나누어 한 사람씩 읽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하려 애쓰지만, 결국 부족함과 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죄와 두려움을 대신 지셨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 얼마나 무너져 있든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